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김 중 성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 대담 시리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 안팎의 관심을 높이고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오랫동안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켜온 인물들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 쌓여 있는 역사를 끌어내어 오늘을 비추어 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첫번째 대담에서 만난 사람은 196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한 김두홍 선생이다. 선생은 경남고등학교 사서교사(1956-1962),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연구사(1962-1964),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장학사(1963-1966)로 활동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과 총무부장(1966-1968),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1968-1980), 신라대(舊 부산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1980-1993) 등을 거치면서 관계와 학계에서 두루 활동하셨다.

대담 일시: 1998년 2월 19일 오후 2시~4시

대담 장소: 김두홍 선생 자택(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김중성 :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말씀들 듣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 운동과 함께 걸어온 선생님의 대화가 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와 관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려 주십시오.

김두홍 : 글썄요, 뭐 도움 될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나 자신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한국 도서관사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성 : 정년 퇴직 하신지가 벌써 5년이 되셨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두홍 : 요즘은 주로 집에서 책을 읽고 산보도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가끔씩 근처 시장에 가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지요.

김중성 : 예, 그럼 먼저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부터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으신게 경남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면서였다고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홍 : 예, 그 때가 1956년인데, 군에서 제대한 후에 경남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선생님께서 나한테 학교도서관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학교도서관을 맡게 되었지요. 그 분이 사적으로는 내 친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이전이었지요. 6.25때 부산 다대포에 있는 병참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만드는 일을 맡으라는 병참학교 교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교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내가 도서관을 알아야지요. 그 때 부산시립도서관이 용두산에 있었는데 거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그 도서관의 열성적인 이용자여서 일본 사람이 번역한 50권이 넘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모두 빌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산시립도서관에는 후에 동아대 도서관 사서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재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한테 가서 도서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를 빌려 주더라구요. 자료는 주로 병참 관련 기술자료밖에 없었으니까 억지로 십진분류에 맞추어 분류를 해서 서가에 배열을 해 놔어요. 나중에 병참감실에서 미군 고문관들이 병참학교 시찰을 내려 왔는데, 교장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료실에 들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나 물어요. 그래서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가를 주욱 둘러보더니 어떤 책을 찾아와 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찾아다 줬더니 하, 이 시스템 참 좋다 그래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하기 전에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요.

김종성 : 선생님께서 사서교사로 활동하시던

시기는 6.25 직후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무척 열악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학교도서관도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했을 것이고 자료도 무척 제한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당시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독서실 기능을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홍 : 그 때까지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방과후에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나 읽는 장소로 생각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그것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전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각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도서관 자료가 연계되어서 교사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차차 전환되어 갔죠. 그리고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할 때는 교과내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서관 청구번호까지 명시해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교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학생들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 여건은 불비했지만 그 때가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본질에 더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성 :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에 관한 자료를 보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1957년에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완전 개가제를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폐가제나 반개가제가 일반적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하시게 되었습니까?

김두홍 : 우리 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이 완전히 개가제로 운영된 것은 아마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이 처음일 겁니다. 학생들이 독서 취미에 따라서 그냥 책을 읽겠다고 하면 반드시 개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책을 읽겠다고 신청하면 그 책을 내어 주면 되는 건데, 자율 학습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서가에 접근해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찾아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개가제가 시행된 거지요.

김종성 : 도서관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가제가 시행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개가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것이군요. 학교도서관 운동사에서는 1956년에 마산여고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아주 중요한 계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발표회가 학교도서관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두홍 : 1956년에 마산여고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있었던 것은 문교부 연구 지정 학교로서 연구 주제가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연구 지정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마산여고에는 후에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김세익 선생이 사서교사로 있었고, 박경원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

어요. 문교부 지정 학교는 시도교육위원회 지정 학교와 달라서 연구발표회를 하면 전국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산여고가 문교부 연구 지정 학교로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하고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을 보급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산여고의 연구발표회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겁니다.

김종성 : 선생님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1950년대에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경남 지방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이 아니고 경남 지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김두홍 : 역사라는 것이 개인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개인의 영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교장들이 경남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교장들이 당시 진주여고의 박경원 교장, 경남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이지요. 그분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김종성 : 일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이 도입되고 이런 사조에 근거하여 교육방법을 개혁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새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새교육과 같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도 학교도서관이 발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것 아십니까?

김두홍 :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 요인이라 할 수 있지요. 그 때 새교육의 이념에 따라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자율학습의 방향으로 교육의 방법을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요. 자율 학습을 얘기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수단이 되는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자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새교육의 분위기가 선각자들을 움직였고, 교육을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가 결국 학교도서관이라는 방법에 집중하게 된 거지요.

김종성 : 당시 미국이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교육사절단을 파견하여 교육 재건사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4차 교육사절단으로 내한한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우리 나라 도서관과 도서관학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피바디 교육사절단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습니까?

김두홍 : 피바디 교육사절단은 본래 우리 나라 사범교육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서관 전문가가 포함돼 있었던 거지요. 스와이거라고 하는 여자분이 처음 왔고, 그 다음 버제스, 엘라드, 크로슬린 같은 분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이 컸지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교육 시킨 한국인 1세대 전문가들인 명재희, 이

한용과 같은 사람들이 사서교사 강습을 실시했지요. 처음에는 연세대학에 사서교사 강습 과정을 개설했고 그 다음에는 이화여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서관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에 있던 미국 문화원(USIS) 자료실하고 미군 부대 도서관입니다. 이런 자료실들이 우리 나라 도서관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가령 초창기 개가체 개념이 없을 때도 그사람들은 반드시 개가체를 했거든요.

김종성 : 초창기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에도 미국의 영향이 직간접으로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겠군요. 1962년에 이윤근 선생님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장학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경남의 학교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시설이나 예산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두홍 : 그 때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운동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의식주 해결하는데 급급했지 다른데 정신 쓸 여유가 없었죠. 학교에서도 교과서하고 최소한의 교실이 요구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서 학교도서관을 꿈 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비상 수단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폐품 수집과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는 보리 이삭하고 벼 이삭인데, 사실 보리 이삭은 주울 수 있어도

벼 이삭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벼 추수기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벼 이삭을 주워서 학교도서관 도서를 확보하도록 했죠. 각 학교에서 벼 이삭 얼마를 주워서 돈을 얼마 벌었고, 도서를 몇 권 구입했는지 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으로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육위원회 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교장들이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장학사가 장학지도를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강하게 지시를 했죠.

김종성 : 상당히 기발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요, 의도한 대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두홍 : 그 성과 아니었으면 아마 경남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가 그렇게 많이 수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 때 미국 도서관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의 도서관 실태를 시찰하고 간 뒤에 발표한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남이 여타 도에 비해서 훨씬 도서 수집이 앞서 있다고.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로 봐서는 돈이 상당히 많았죠. 하여튼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은 되었습니다.

김종성 :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마련을 위한 방법치고는 매우 독창적이며 그 성과도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변칙적인 방법이라 어떤 무리도 따랐을 텐데요, 학교 현장이라든지 학부모에게서 불만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김두홍 : 물론 있었지요. 학생들에게 일종의

변태적인 잡부금을 거둔다고 지방 신문에 크게 났어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때에 학생들이 집에서 쌀이나 벼를 도서 구입하기 위해 퍼가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두홍 장학사가 왕초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감 지시를 받아서 각 학교 교장들에게 언론 기관 사람들을 불러 이삭 줍기 해서 구입한 도서를 보여주라고 공문을 보냈죠. 이삭을 얼마 주워서 돈을 얼마 벌고, 그 돈 가지고 산책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언론 기관에 보여주라고 도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시달 했어요. 그래서 언론 기관이 그걸 보고 난 후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삭 줍기를 해서 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찬동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김종성 :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부흥하긴 하는데 본격적인 곳은 경남 지방이었던군요. 특히 1960년대 경남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생각이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 경남 지방에 비해서 볼 때 타 지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두홍 : 타 지방에도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이 군데 군데 있기는 있어도 전국적 규모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난 곳은 없었습니다. 타 지방의 학교도서관 중에서 모범적인 곳을 몇 곳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천에 제물포고등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때 사서교사가 최근만 선생인데, 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을 지내고 지금은 아마 서울에서 도서관 용품사 사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충남지역에 권양원 선생이 하는 공주사대부고 도서관이 하나 있었고, 전주여고, 광주여고, 그리고 제주도에 오현 중 고등학교라는 곳에 열심히 일하는 사서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각 시도에서도 산발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있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정책으로 학교도서관을 지도 육성해 나간 데는 아마 경남밖에 없었을 겁니다.

김종성 : 예, 그렇군요. 그리고 경남이 그렇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육감으로 재직하신 이윤근 선생님과 장학사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아야겠군요.

김두홍 : 학교도서관 운동의 기운이 산발적으로나마 경남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불을 붙인게 교육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인화작용을 한 것이 도교육위원회라고 보는 거지요.

김종성 : 선생님께서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경남 도교육위원회의 연구사와 장학사로서 도서관 운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남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전국적으로도 부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학사라는 직위가 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서관 업무만 전담하는 장학사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두홍 :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장학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사들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장학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 경남 안에서도 깊은 산골이나 섬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마치 유배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장들이 좋은 학교, 편한 학교에 발령 받기 위해서는 장학사들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장학사들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동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효과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자리가 뭐 도서관 담당 장학사다라는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장학사 업무 이외에 맡은 일이 도서관 담당이었던 거지요. 교육감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학사에게 그 일을 명시적으로 분담 시킨 겁니다.

김종성 : 196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재미 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도서관 라인 학교'라는 제도를 운영한 것인데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김두홍 : 그건 부산에서 진주까지 나 있는 큰 도로와 거기에 물려 있는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학교들을 여러 개의 군으로 나누어 묶은 것입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도로를 따라 있는 각 학교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도서관 라인 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도에 연해 있는 학교들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시범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시범 학교도서관군이죠. 어느 라인에 들어 있는 어느 학교에서 시범 발표회를 한다고 공시를 하게 되면 지정된 날 그 라인에 속한 학교의 사서교사들과 교장들

이 모두 모여서 발표하고 토의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김종성 : 이런 활동은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파악시키고 운영 방법을 보편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과 경남이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되기 전에는 부산도 경남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차이가 없었겠지만 분리된 후에는 교육감도 달라지고, 따라서 도서관 정책도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분리된 후 부산과 경남의 학교도서관 활동은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됩니까?

김두홍 : 분리된 후 경남은 이윤근 교육감이 계속 있었으니까 학교도서관이 지속되었고, 부산은 다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으니까 조금 달라졌겠지요. 그렇게 6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윤근 교육감이 1969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나 방침이 그대로 지속된 거지요. 그런데 경남에는 도교육감으로 다른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너무 강압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불평이 있으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약해지지요. 교실도 없고 여러가지 교구나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될 판인데 책 살 돈이 어디 있느냐, 또 교실도 부족한 판인데 도서관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경남 지역에 일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그런 분위기라

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이 컸지요. 그래서 경남은 학교도서관이 일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경남 지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종성 :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경남이 주도를 하다가 1970년대에는 부산 쪽이 더 앞서가게 되었군요.

김두홍 : 1970년대 들어와서는 경남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부산은 그대로 지속을 한 겁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옛날 그대로 지속이 된 거지요.

김종성 : 이윤근 선생님 말씀으로는 1969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발령받은 후 부산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회고하시더군요.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잘 안 따라 주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두홍 :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당시는 부산 소재 학교의 재력이 경남 소재 학교의 재력보다 아무래도 앞서니까 부산이 여건은 훨씬 좋았다고 보아야 하지요. 부산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교장들의 협조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죠. 당시는 학교 교사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보수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사립은 물론이고 공립도 그랬습니다. 가령 부산 시내 일류 고등학교 교사와 이류 삼류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아마 오륙배 차이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동일하지만 기성회비에서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정해진 본봉의 몇 배에 달했으니까요. 그런 학교가 부산 시내에서는 경남고, 부산고, 경남여고, 부산여고 등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형편이 좋은 부산 지역 학교들은 그런대로 도서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성 : 당시 사서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도서관을 맡아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서교사는 일반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서교사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었습니까?

김두홍 : 전임사서교사 제도가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교사 중에 학교도서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사서교사로 정해서 도서관을 맡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지요. 그 대신에 사서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다른 교사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반 교사들은 일주일에 스무 시간 이상 맡았는데 사서교사들은 열 시간 정도 맡았어요. 그런 특전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서교사의 열성에 비해 학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차라리 수업 열 시간 더 하고 사서교사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사서교사의 개인적인 열의가 중요한 요건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김종성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던 사서교사들이 그 후에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대학의 교수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사서교사들이 비교적 우수한 교사들로 선발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홍 :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서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발전이 두드러진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도서관을 열심히 해서 덕 본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교육행정 당국의 눈에 띄니까 그 사람이 내신 되면 거절할 수 없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사서교사들이 발전을 한 이유는 교육행정 당국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성적으로 일한 사서교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당시 사서교사들이 대개 성취동기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 교사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사서교사들이 하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서교사다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사서교사 하는 것은 바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서교사들은 그것을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안 봤지요.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모두 열정을 기울였거든요. 모두 신념이 있었고 개인적인 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요.

김종성 :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선생님처럼 사서교사로 계시다가 대학교수나 교장, 장학사로 옮겨가신 분들이 학교도서관 현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 계셨더라면 학교도서관이 지금보다는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침체한 것은 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입니다.

김두홍 : 글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성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인으로

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김두홍 : 교장이 바뀌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심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문교부나 시도교육위원회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도서관을 맡는다는 것이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그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은 심리도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학교도서관이 없으면 사서교사 안해도 되고, 학교로서는 도서구입비 신경 안 써도 되고, 부족한 공간 할애 안해도 되니까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요. 말하자면 예산이나 시설, 인력의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측에서는 점점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학교도서관과 경쟁하게 되는 한 가지 추세가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시청각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교육원장직은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위원회에 병설된 시청각 교육원에서 각학교에 시청각 기자재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정식으로 하달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추세에 편승해서 도서도 시청각 기자재 중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시가지료다 라는 거지요. 그런 궤변이 일부 용납될 정도로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 활발히 행정 지원을 등에 업고 각 학교에 파급된 거지요. 그것이 아마 학교도서관 침체에 큰 영

향을 주었을 겁니다.

김종성 : 원래는 도서관 자료의 영역에 시청각 자료가 포함되고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두홍 : 그렇지요. 본래 학교도서관에서는 시청각 기자재도 학교도서관 자료 중의 일부라고 인정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전 되어서 도서가 시청각 기자재 중의 일종이다라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풍조니까 자발적인 운동인 학교도서관 운동은 맥을 못 춘 거지요. 상대가 안 되었죠.

김종성 :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게 있습니다.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었고, 학교도서관이 나름대로 학교현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교육지원기관으로 받아들여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계에서도 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교부나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지속하여 학교도서관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도서관 같은 교육 기반에 대해 의식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한 겁니까?

김두홍 : 학교도서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했지요. 학교도서관이 학교를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라는 인식이 아니고 단지 우선순위가 좀 높은 선택적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됨

니다. 어디서나 주어진 예산은 항상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한 가운데서도 학교도서관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바람직한데, 불충분하므로 학교도서관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성 : 1970년대에는 우리 나라 교육이 굉장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 여파로 중학교 무시험제가 단행되고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고 경쟁적인 입시 위주 교육 풍토가 더 극심해졌다고 보아야겠는데요, 이런 국면의 변화가 학교도서관 운동에 크게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김두홍 : 글썩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디다만, 그와 같은 교육 상황이 학교도서관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입힌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김종성 : 자료를 보면 1970년대에 부산시에는 '학교도서관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이 모임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김두홍 : 당시 열성적인 사서교사들과 시도교육위원회에 진출한 사서교사 출신 장학사들이 협력해서 만든 '학교도서관 연구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주로 사서교사들의 친목 도모와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안내책자 간행 사업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는 박태신 선생이 더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만든 팸플릿 몇가지 있었습디다. 내가 서울에 살 때 우리집에 불이 나서 입고 자던 옷만 걸치고 뛰쳐나올

정도로 바쁘게 나와서 그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없어졌는데, 『학교도서관 스텝메뉴얼』, 『간이 도서 수리법』, 『버티칼 파일 자료』 등이 그 연구회에서 발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이삼십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학교도서관 실무 시리즈라는 명칭으로 나왔을 겁니다.

김종성 : 이 모임에서는 학교도서관 실무와 관련된 도서를 펴내기도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였군요.

김두홍 :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무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지침서로는 그 이전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부설되어 있는 교육연구소에서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도 소실되어서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사오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양장본으로 좋게 나왔을 겁니다. 경상남도 교육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 일집으로 해서 냈는데 그 책이 우리 나라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입니다. 지금도 부산고등학교나 경남여고 도서실에 가면 있을지 몰라요.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통론책인데 학교도서관의 바이블 처럼 취급되었죠.

김종성 :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시대와 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두홍 : 지금은 과거와 같은 운동 방식, 즉 캠페인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때는 월급 받고 내가 맡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신명을 바쳐서 일하는 분위기, 캠페인에 호응하는 기풍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풍이 딱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성 :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사서교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지게 되신 사서교사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홍 : 사서교사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전에 교육적인 신념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서교사니까 도서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훌륭한 교육자로서 도서관 업무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전임 사서교사 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과 도서관 이용지도 같은 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의 정규 수업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도서관 교육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무직원 처럼 대하고, 일반 교사들에게는 인사를 해도 사서교사에게는 인사를 안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 운영 하기도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풍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도서관을 순조롭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학급이 일주일에

한 시간은 반드시 도서관을 거쳐 나 가도록 한다면 이상적이겠죠. 가령 음악 수업을 음악실로 가서 하듯이 그렇게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김종성 :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정보화 바람이 학교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라든지 어린이 인터넷이라든지 멀티미디어화라든지 하는 움직임으로 표출되는 첨단 기술 환경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방법이 인쇄 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학교도서관 기능을 능가하는 만능의 교육 기자재로 인식되는 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홍 : 아마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기능이나 이론을 습득한 것은 책을 통해서 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 만능이라고 하지만 그 기능이나 이론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서 자료를 이용해야 되지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보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머리 속에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 자료에서 본 것을 도서 자료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어야지, 컴퓨터라든지 시청각 매체가 아무리 발전 한다고 해도 도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없애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청각 매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세익스피어 명작과 같은 것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도서 자료 형태로 그것을 한 번 읽는 것 보다 깊이 있게 받아 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김종성 : 교육 과정에서 시청각 매체와 첨단 정보통신 매체들은 인쇄매체를 보조하고 강화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김두홍: 그렇죠. 『이십 오 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가족들과 상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계 문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근대적인 인간 사회의 고민 같은 것이 원작 소설 속에는 여실히 나타나는데 영화 장면의 마지막 씬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희극이라고 봐야 될지 비극이라고 봐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묘사라는 것이 도서 자료 만큼 영상 자료가 못합니다. 겉으로 슬프다 기쁘다 하는 것은 나타내지만 깊이 있는 슬픔이나 기쁨의 내용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은 영상 매체로 나타낼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슬프고 어떻게 기쁘게 하는 인간의 깊은 심리는 문자 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지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남여 주인공의 애정 묘사가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음탕하게 보이지만 그게 음탕한 게 아니지요. 당시의 사회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그 처절함 속에 온 세상이 뒤바뀌는 혁명의 와중에서 인간성도 변하고 사회의 모든 것이 변해 가는데 닥터 지바고와 라라라는 애인은 본래의 인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책 속에는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영화 속에서는 좀 음란하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 매체는 표면적이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예, 인간을 기르는 교육 현장에서 기계와 기술 중심으로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현실

에서 깊이 새겨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66년에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으로 가셔서 후에 총무부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서관협회로 옮겨 가신 것은 학교도서관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신 일이었습니까?

김두홍: 그런 의도를 가졌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도가 포함된 겁니다. 장학사로 있으면 저절로 교감, 교장이 되니까 교육자로서는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름도 없는 도서관협회 기획부장으로 가게 된 것은 마침 그 당시에 학교도서관 운동을 중앙에서 리드해 줄 필요성을 도협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인식을 했고 거기다 내 개인적인 목적이 작용한 겁니다. 그것은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교수가 되는 것이 힘드니까 도협에 가서 활동하면서 시간강사로 학교에 출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균관대, 이화여대에 출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 성균관대 부교수 발령을 받았죠. 그런데 마침 그 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에서 사무국장으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성균관대학에 부교수 발령을 받고난 뒤에 바로 코스틱 사무국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진퇴양난이었지요. 그 때 성균관대학 교무처장으로 계시던 분이 조좌호 교수라고 동양사 전공하는 분인데 내가 부산대학 예과에 다닐 때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 같으면 학교 그만두고 저 쪽으

로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1968년에 코스틱으로 가게되고 코스틱으로 가게 되니까 교수 되는 것이 늦어진 거지요. 코스틱 가서도 시간강사를 하기도 하고 내 사무실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스틱에 사무국장파 소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대학원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많이 권하고 지원했습니다. 시간도 할애해 주고 논문 인쇄도 코스틱에서 하도록 배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틱에서 배출한 박사가 우리 도서관학계에도 많지만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성 :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초창기 역사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학교도서관 운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부터 부임 요청을 받게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두홍 : 당시는 우리 나라에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던 시절인데 연구자나 기술자들이 볼 자료가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코스틱이라는 곳에 상당한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라는 불평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어갔어요. 그러자 박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이던 이후락 씨한테 그런 불평을 듣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고 고민이 되었지요.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게

나지요. 이후락 씨와의 인연은 6.25때 내가 그 사람 부관으로 있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병참감으로 있었는데 병참감실에 미군 군사고문관이 오륙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결하는 일을 할 사람으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으로 병참감실 산하 부대에서 한 사람 선발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때 부산 다대포에 있는 병참학교에서 군사 영어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있으면서 자료실을 맡고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선발이 되어서 병참감 부관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인연이 되었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 후 마을문고 진흥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엄대섭 씨고 이 사장이 이후락 씨였어요. 그 사무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었는데 이사회 하는날 그 사람 온다고 마을문고 진흥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서 인사를 한 번 했더니 그 뒤에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센터를 잘 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나 시킬 수는 없고 자기 아는 사람을 하나 시켜야 되겠다 하고 궁리를 하다가 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디 외출했다가 도협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청와대에서 빨리 들어 오라고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서류뭉치가 든 보따리와 수표를 몇 장 주면서 이 자료 가지고 보름 안으로 과학기술정보센터를 어떻게 육성 발전 시켜야 될지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성 : 코스틱은 당시 우리 나라 과학 기술 정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서관학계로 진출하시려던 의도가 전환되어 유관현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김두홍 : 그렇습니다. 코스틱이라는 곳이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나 기술의 대부분이 코스틱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한테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조그만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크게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우리 나라 산업 발전이나 과학 발전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자료를 제공했지요.

김종성 : 코스틱은 지금 키니티(KINITI, 산업기술정보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과학기술정보센터의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요.

김두홍 : 맨 처음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안에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설치되었고 그것이 독립해서 문교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건물을 갖게 되었는데 창경원 한쪽 구석에 이백평 규모에 직원 십 수명 정도로 있었어요. 처음에 자료 정리나 자료 검색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있는 사공철 선생입니다. 나머지는 이공계 출신과 사무직원들이었죠. 자료는 문교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외국 과학기술 잡지 백이슈를 십년치 확보하고 있는데 서가도 없고 그것 정리할 인원도 없고 해서 풀뜰 말아서 창고에 처박아 놓았어요. 있는 자료도 활

용을 못하는 실정이었지요. 사공철 씨는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내가 부임해 간 겁니다. 먼저 서가를 만들고 자료를 분류해서 배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출신 직원들이 이 양반이 도서관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기술정보센터 되기 전에 우선 도서관 수준이라도 되어야 할거 아니냐 하면서 청와대에 돈을 신청해서 특별 예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료 정리할 직원을 뽑았어요. 성균관대학에서 한 명, 이화여대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때는 코스틱 월급 많이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을 때니까 제일 우수한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서가에 배열해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었죠. 그리고 나니까 불평하던 이공계 출신 직원들이 과연 뭐가 다르구나 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김종성 : 코스틱에서 12년간 일하신 후 1980년에 부산여대(현재 신라대) 문헌정보학과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도서관협회로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오랜 시간을 돌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위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는 혹 없으신지요?

김두홍 : 그 동안의 활동이 인생 역정에서 손해본 것은 아니겠지만 교수직으로서는 손해본게 많죠. 교육자로서 기여는 작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조금도 없고,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우리 나라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일에 마음으로나마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종성 :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학문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지만 도서관 현장을 위해 흘리신 땀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무척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도서관에 대한 신념과 열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대담을 마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서교사를 비롯한 현장의 모든 후배 사서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두홍 : 사서직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냥 오큐페이션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철학이 없어도 되지만 프로페션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다운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몸에 배인 철학이 유형 무형으로 발휘되어 도서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지요. 사서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직장인으로서의 사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철학을 항상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성 :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후배 사서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홍 : 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분류 이론과 실재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의 등함을 함께 고찰한

정보자료의 분류

신간

최달현·이창수 공저

〈주요목차〉

도서관자료의 조직/분류이론/자료분류의 역사/
주요분류법(KDC·DDC·LCC·UDC) /
분류작업·분류정책과 도서관행정/주제명표목과
주제명표목표(미국의회도서관·시어즈·리제철·
국립중앙도서관)/정보기술과 자료분류/자동분류

354쪽/신국판/
정가 12,000원/
회원보급가 9,600원/
ISBN 89-7678-037-X

구입문의·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